## 울산 정토사, 어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

### 회주 덕진 스님 "장엄한 화엄세계 같은 화음"



울산 정토사 불자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했다.

정토사(회주 덕진)는 12월 1일 울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정토어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사진> 음악회는 정토합창단, 정토어울림혼성합창단, 행원합창단, 관현악단 등이 무대를 장식했으며 현악 3중주의 버터플라이 왈츠, 어울림합창단의 불교성악곡, 연꽃향기, 브라보 아코디언 앙상블 파리의 하늘아래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다. 음악회에는 주지 증관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은 "꽃들의 개성이 어우러져 장엄한 화엄의 세계를 만들듯 합창단의 화음이 연꽃송이 돼 묘음의 바다가 된다"며 "쉼 없는 정진으로 힘들고 지친 모두에게 복된 소리 공양 올림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주지 증관 스님은 "정토사 가족을 비롯한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세계유산 표지석 세운 안동 봉정사

### 높이 2.3m, 너비 4.3m, 무게 30톤 규모




안동 봉정사(주지 도륜)와 경북미래문화재단은 11월 29일 봉정사 주차장에서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표지석을 제막했다.<사진> 안동시가 주최하고 봉정사와 경북미래재단이 주관한 제막식에는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과 개목사 주지 각현 스님, 권영세 안동시장, 이재업 제16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정사에 들어선 표지석은 높이 2.3m, 너비 4.3m, 무게 30톤의 대형바위로 서예가 정현식 선생이 글을 썼다.

주지 도륜 스님은 "봉정사는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유산 봉정사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영세 안동시장은 "봉정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내년부터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안동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 기록유산, 인류문화유산 등 유네스코 카테고리에 모두 등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 음악으로 되새긴 송년 법회

### 대구 해운정사 송년음악회




대구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12월 1일 경내에서 제10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송년회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과 (선)승가회 스님, 일심비구니 스님 및 이태훈 달서구청장, 조태흠 해운정사 총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주지 청명 스님은 개막식 인사에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송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이자 지난 기간 끝내지 못한 것을 마무리하는 때"라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고, 끝남에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내자"고 당부했다.

송년회 및 작은 음악회에서는 해운정사 신도회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인재육성 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황기순 희극인 사회로 해운정사 합창단과 임직원 화합 한마당, 불자노래자랑을 비롯해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고시생 생활공간 '고담정' 개원

### 천불정사, 현판식 봉행… "고시생 좋은 결과 있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절 입구 주택 매입 리모델링**
**현재 고시 준비생 12명 입소**
**월 250만원 임대료 사찰 부담**
**"천불정사 후원에 공부 매진"**



천불정사 인근 주택을 매입 후 개조해 고시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난 고담정.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과 내빈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부산 천불정사가 고시생을 위한 숙소 '고담정'을 개원했다. 천불정사는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합격을 기원해 인재불사 도량으로 인정받고 있다.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12월 2일 경내 고담정앞 마당에서 '고담정 개원 현판식'을 봉행했다. 고담정은 천불정사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편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천불정사는 절 입구에 위치한 2층 주택을 매입해 학생들이 거주하기 편하도록 리모델링을 마친 후 12명의 고시생을 맞았다. 이번 현판식을 통해 정식 운영을 알리고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후원할 예정이다. 고담정은 2층 주택으로 각 층에 방 3개 2인 1실로 구성돼 있다. 남학생 6명과 여학생 6명이 입실해 경제적 부담을 잊고 학업에 매진 중이다. 고담정 개원으로 천불정사는 부산대학교에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10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개원식에는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 이기영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 강재호 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불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개원식은 삼귀의와 경과보고,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으며 입시생의 감사인사도 이어졌다.

주지 고담 스님은 무엇보다 운영하다 여건상 문을 닫아야 했던 기존 고담정을 떠올리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어 뜻 깊고 기쁘다"고 말했다.

천불정사는 2006년 부산대 근처에 건물을 매입해 무료기숙시설을 운영해오다 2014년 문을 닫은 바 있다.

주지 고담 스님은 "부산대 북문 근처에 고담정을 개원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며 "오늘 그 인연들을 다시 만나 학생들을 위해 고담정 문을 열 수 있어 기쁘다. 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영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천불정사가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왔다"며 "주지 고담 스님을 비롯해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김경민 고시생은 "부산대 행정고시반에서 공부하다 고담정에 인연이 닿아 들어오게 됐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해야 할 이런 시기에 천불정사의 후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불정사는 고담정 숙소 운영뿐 아니라 부산대 사회과학대 내 위치한 학습공간 신목정을 후원하고 있다. 신목정은 5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다. 매년 부산대 신목정에서 공부한 행정고시 합격자들은 천불정사를 방문해 고담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올리고 있다. 이번 개원식에는 올해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영민 씨가 방문해 감사인사와 함께 후배들에게 격려사를 남겼다.

이영민 씨는 "그동안 천불정사의 격려와 후원으로 힘들 때마다 힘을 얻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여기 고담정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성과를 얻고 다시 한 번 더 스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불정사는 개원식 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20kg 50포대 총 1000kg을 금정구 장전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자비의 쌀은 49일 수자령 기도 회향 법회를 맞아 마련됐으며, 천불정사는 매년 4차례 나눠 백미 4000kg을 소외 이웃에게 나누고 있다.

## 빛고을 광주, 화엄사 포교당 짓는다

### 구례 화엄사, 광산구 하남지구 지상 4층 규모의 포교당 착공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광주포교당 착공식에서 포교당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가 광주에 도시포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당 건설에 나선다.

화엄사는 12월 2일 광주 하남지구에 '화엄사 빛고을 광주포교당' 건립 착공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교구 말사 주지스님들과 배홍석 광산구의회 의장, 김홍식 구례군의회 의장, 박봉주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회장, 정광학원 임직원 등 2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해 착공식을 축하했다.

착공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경과보고, 합창단 음성공양, 인사말, 축사, 시삽식이 이어졌다. 이날 착공한 빛고을 광주포교당은 지난 1990년 화엄사 주지였던 종원 스님이 발원해 추진됐다. 당시 화엄사는 광주에 포교당을 건립하려는 원력으로 광주 금호지구에 토지 200평과 시주를 받은 100평 등 총 300평을 마련해 놨다.

이후 30여 년간 미뤄진 불사는 덕문 스님이 신임 주지로 오면서, 2018년 11월 금호지구 토지를 매각하고 하남3지구에 895㎡를 매입하면서 다시 본 궤도에 올랐다. 이후 2019년 1월 교구종회의 의결을 통해 마침내 착공식을 개최했다. 빛고을 광주포교당은 2021년 3월 개원 예정이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는 호남을 대표하는 교구본사임에도 지리적 여건상 도심포교에 소홀했다. 하지만 오늘 화엄사 사부대중 모두가 도심포교의 상징인 광주포교당 건립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일심으로 노력해 기공식을 맞게 됐다"며 "광주포교당 기공식이 화엄사의 또 다른 천년을 위한 새로운 걸음이자 도심포교와 전법의 백년대계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에서 가장 사찰이 없는 곳으로 알려진 광산구 하남지구에 들어설 화엄사 광주포교당은 895㎡의 대지 위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1,638㎡에 대웅전과 관음전, 시민선방, 문화교실 등이 들어서 지역포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